

XSchema 를 이용한 EJB 배치설명파일의 확장 방안 연구

○ 공재원, 심우곤, 백인섭
아주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jwong, startear, ispaik}@madang.ajou.ac.kr

(A Study of Extension of the EJB Deployment Descriptor File with XSchema)

○ Jae-Won Gong, Woo-Gon Shim, In-Sup Paik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jou University.

요약

컴포넌트는 소프트웨어 재사용의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수의 컴포넌트가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다[9]. 많은 수의 컴포넌트들 중에서 특정 도메인에 이미 적절하다고 판단된 컴포넌트를 검색해서 사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6], 이를 위해서 컴포넌트에 대한 정확한 명세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컴포넌트 모델의 하나인 썬(Sun)社의 EJB ver1.1은 배치설명파일(Deployment Descriptor)을 XML로 기술하고 있으며, DTD로 Validation 체크를 하고 있다. 그러나 DTD는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에서 한계를 가지며 하나의 XML은 여러 개의 DTD 파일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확장성에서도 취약함을 나타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XSchema로 변환하였다. 또한 현재 EJB의 배치설명파일에서는 컴포넌트의 결합 및 의존성에 대한 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Contract에 대한 속성들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태그를 지정해보도록 한다.

1. 서론

컴포넌트는 바이너리 코드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쉽게 바인딩되어 수행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단위를 말한다[9]. 컴포넌트 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컴포넌트에 대한 이용도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컴포넌트의 표준화된 모델이 제시된 것이 없으며 컴포넌트의 명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현재 컴포넌트 시장은 크게 썬(Sun)社의 JavaBeans/Enterprise JavaBeans(EJB), 마이크로소프트(MS)社의 COM/DCOM, ActiveX/OLE, OMG 그룹의 CORBA 등이 각자 업계의 표준을 가지고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많은 컴포넌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컴포넌트가 적시 적소에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컴포넌트에 검색이 쉽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컴포넌트에 대한 명세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각 컴포넌트 모델에서는 배치(Deployment)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JavaBeans의 경우에는 BeanInfo 클래스를 통해서 기술을 하고 있으며, EJB1.1의 경우에는 따로 XML(ejb-jar.xml)파일을 생성하여 기술하고 있다. COM/DCOM의 경우에는 OSD를 자체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고, CORBA의 경우에는 Component Descriptor Language(CDL)을 이용하여 배치를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컴포넌트 모델 중 썬(Sun)社의 EJB1.1 초점을 맞추었으며, EJB의 배치설명파일(Deployment descriptor)인 XML 파일이 validation 검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DTD를 XSchema로 확장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EJB 배치설명 파일에서 미비하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Enterprise JavaBeans(EJB)

EJB는 엔터프라이즈급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분산 배치를 위한 서버측 분산 객체 컴포넌트 아키텍처이다[8]. J2EE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보여주기 로직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JSP, Servlet이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EJB이다[8].

개발자 입장에서 하나의 EJB를 만들기 위해서는 Client Interface 부분(Home Interface/Remote Interface로 나뉜다)과 Enterprise Bean Class, Primary Key Class 파일, 그리고 본 고에서 다룬 배치설명파일(Deployment Descriptor File)을 구성한다.

2.1 배치설명파일 (Deployment Descriptor)

EJB는 분산 객체이므로 분산 환경에서 필요한 통신에 관련된 코드와 EJB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관련된 코드가 런타임시에 각각의 빈클래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배치설명파일(Deployment Descriptor)이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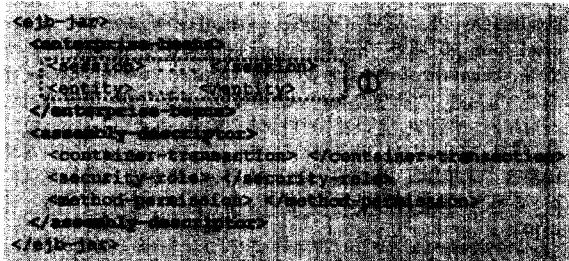


그림 1. 배치설명파일의 기본 구조

위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EJB 배치설명파일은 <ejb-jar> 루트태그 밑에 크게<enterprise-beans>와 <assembly-descriptor> 두 개의 내용을 포함한다. <enterprise-beans>는 그림 1의 ① 부분처럼 <session>빈 혹은 <entity>빈의 내용을 포함하며, <session> 혹은 <entity>태그 밑에는 해당 빈이 사용하는 다른 빈에 대한 정보와 빈이 접근해야하는 DB 접속과 같은 외부 자원에 대한 정보 및 해당 빈을 사용할 수 있는 role의 이름들의 목록이 포함된다. <assembly-descriptor>는 빈에 접근할 때에 사용되는 보안 역할에 대한 정보와 빈에 기술된 메소드들의 목록, 그리고 특정 트랜잭션 속성이 어떤 메소드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배치설명파일은 “ejb-jar.xml” 이름으로 저장 된다.

3. DTD 와 XSchema

XML 문서의 validation 체크를 위해서 주로 Extended BNF 형식으로 기술이 되는 DTD 가 사용되어왔으나 DTD는 데이터 타입에서 상당히 제한적이며(#PCDATA 타입만 가능) Element의 반복 횟수에 대한 정확한 표기가 불가능(0 개이상, 1 개이상, 1 개, 0 개/1 개 이렇게 4 가지 표현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밀하게 문서의 Validation 을 검사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여러 개의 Namespace 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확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2000년 5월에 Recommend 된 Xschema 의 경우에는 XML 의 Validataion 을 검사한다는 DTD의 기본적인 성격을 따르면서 XML 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Xschema 는 다양한 데이터타입과 횟수의 표시, 여러 개의 Namespace 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DTD 의 확장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4. XSchema 를 이용한 배치설명파일의 작성

그림 2는 현재 EJB 배치설명파일의 DTD 파일에서 Method 부분만을 가져온 것이고, 그림 3은 이 DTD 파일을 XSchema로 변환한 것이다. XSchema는 자신만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수 있고(ex. <xsd:complexType>), 사용되는 Element의 회수를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이 (ex. minOccurs, maxOccurs) DTD 와 가장 크게 구별 되는 점이다.

컴포넌트의 의존성을 파악하고 컴포넌트 통합을 위해서는 Extra-Funcional 속성(성능, 정확성, 가능성, 잠재성, 보안성)을 나타내야 한다. 이를 위한 API 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2], Beugnard 는 이를 위해서 Syntactic, Behavio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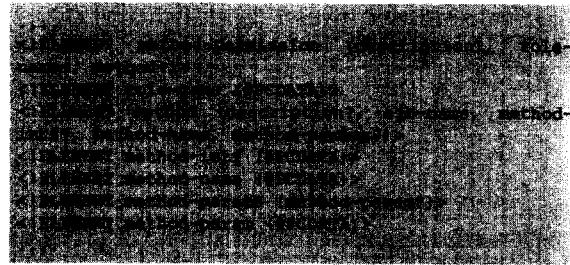


그림 2. 기존 EJB1.1에서 제공되는 DTD 파일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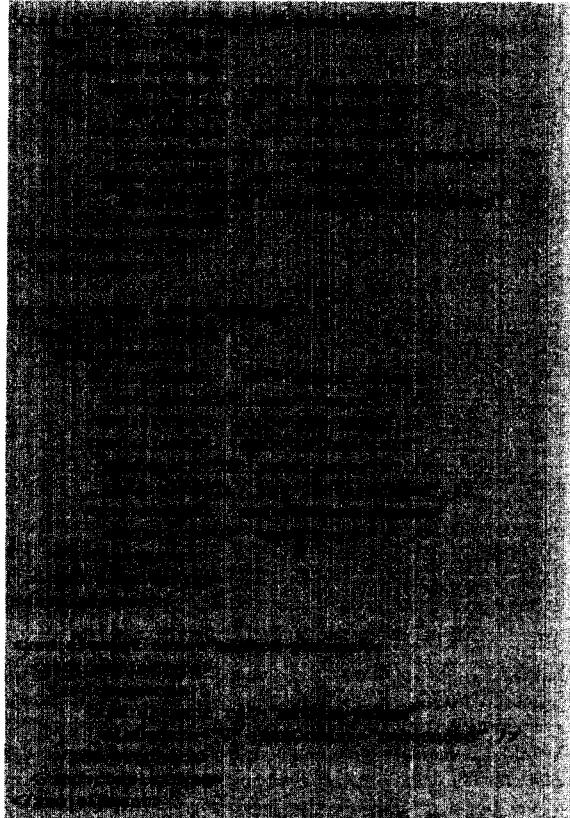


그림 3. 기존 DTD ■ XSchema로 변환한 xsd 파일

Synchronization, Quality-Of-Service 의 4 가지 속성을 제안하였다[1]. 현재 EJB 의 배치설명파일에서는 함수에 사용되는 input 파라미터의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으나, IDL 의 표현 방식과 같이 파라미터의 In/Out/InOut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형태를 이용하여 그림 4의 ①에서 보이는 것처럼 <param-in>, <param-out>에 대한 포함하도록 확장하였다. 또한 그림 4의 ②에 해당하는 <method-behavior>에 대한 정보는 Beugnard 의 Level2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pre/post condition 의 정보를 기록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를 위해서 <require>, <ensure>를 선언하도록 한다. 그림 4의 ③에 해당하는 <method-sync>에 대한 부분은 Beugnard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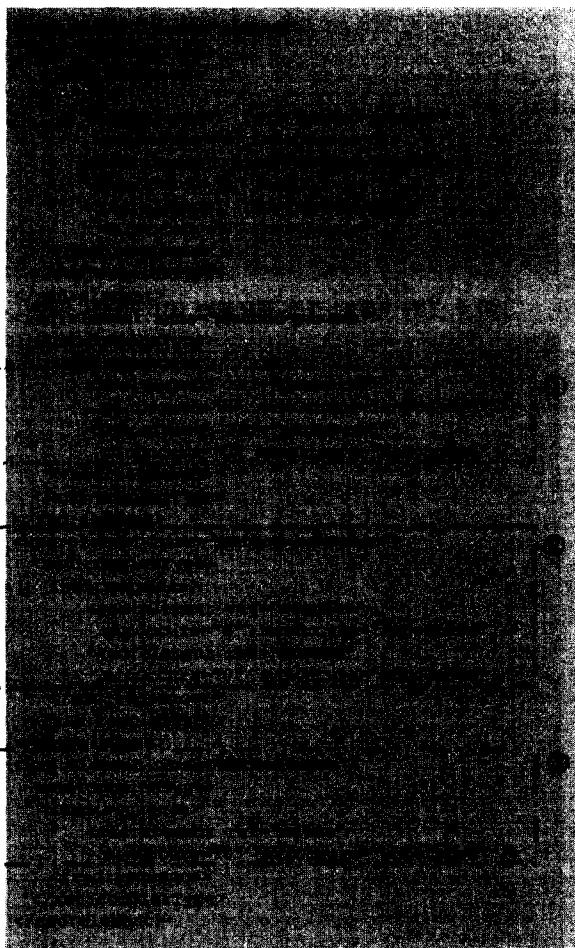


그림 4. Xschema에 기반한 확장된 xsd 파일

Level3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서비스들간의 Synchronization을 맞춰야 하는 경우를 위해서 mutual exclusive(Mutex)의 상태를 만들어둔 것이다. Beugnard는 Level4인 Quality-Of-Service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본 고에서는 생략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현재 EJB의 배치설명파일에는 결합 및 컴포넌트 의존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상태이며 DTD의 한계 때문에 정확한 표기에서도 많은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DTD가 갖는 제약 사항들 중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데이터 타입은 XSchema에서 제시하고 있는 <xsd:complexType>, <xsd:simpleType>등과 같이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데이터 타입과 boolean, date 등의 데이터 타입을 통하여 보완을 하였다. Element의 등장 횟수에 대해서도 minOccurs, maxOccurs에 대한 속성을 사용하여 배치설명파일이 좀더 정확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한편, 기존 EJB1.1의 명세에서 결여되어있는 인터페이스의 behavioral, synchronization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method-behavior> 태입을 새로 지정하여 precondition에 대한 내용은 <require>태그에서, post-condition에 대한 내용은 <ensure>태그에서 표현하도록 하였다. Behavioral의 표현을 위해 require 정보와 ensure에 대한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순차적인 프로그램 환경에서의 신뢰도의 수준을 올리게 된다[1]. 또한 <method-sync>타입을 새로 만들고 그 타입에서는 Mutual Exclusivce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mutex>라는 태그를 포함시켰다. 이 표현은 분산환경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한다[1].

본 논문에서 언급된 EJB의 배치설명 파일 외에도 컴포넌트 모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CORBA와 COM의 명세 언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XSchema를 통해서 확장 표현하는 일을 현재 진행중이다.

참고문헌

- [1] A.Beugnard, J.M.Jezequel, N.Plouzeau, D.Watkins, "Making Components Contract Aware", IEEE Computer, 32(7), pp.38~45, July 1999.
- [2] F.Bachman, L.Bass, C.Buhman, S.comella-Dorda, F.Long, J.Robert, R.Seacord, K.Wallnau, "VolumeII : Technical Concepts of Component-Based Software Engineering", Carnegie Mellon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 CMU/SEI-2000-TR-008, 2000.
- [3] N.H.Lassing, D.B.B.Rijksenbrij, J.C.van Vliet, "A View on Components", Proc. Of 9th Int.Workshop on Database and Expert Sys. Applications, pp.768~777, 1998.
- [4] H.Richard, "Enterprise JavaBeans", O'reilly, 2000.
- [5] L.Roger Costello, "XML Schema", XML Technologies Course, 2001.
- [6] "Enterprise JavaBeans v1.1, Final Release", Sun Microsystems Inc., pp.239 ~ 269, 1999.
- [7] "XML Schema Part 0:Primer", W3C, 2001.
- [8] "XML Schema Part 1:Structure", W3C, 2001.
- [9] "XML Schema Part 2:DataTypes", W3C, 2001.
- [10] 김세곤, 서창근, 김민식, "EJB Bible", 정보문화사, 2001.
- [11] 박서영, 신영길, 우치수, "XML 컴포넌트 명세서 기반의 컴포넌트 검색 기법",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제 27 권 제 2 호, pp.180~192, 2000.